# 사기 당했나 공천 노렸나 액수·시기 ‘의혹 투성이’

**리뷰 2018 이 사건**

〈2〉 보이스피싱 당한 윤장현 전 시장

## ‘가짜 권양숙’에 4억5000만원 보내 사기범 아들·딸 채용도 시켜줘 검찰 기소…내년 1월 9일 첫 재판

“권양숙입니다. 딸이 비즈니스 문제로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5억원만 빌려주시면 곧 갚겠습니다.”

지역 정치계 인사들이 지난해 받은 이 한통의 문자메시지가 광주는 물론 전국을 뒤흔들었다. 문자를 받은 대다수 정치계 인사들은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무시했지만 윤장현 당시 광주시장은 달랐다. 한치의 의심도 없이 문자를 보낸 사람이 진짜 권양숙 전 영부인인지 알고 4억5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보냈다. 또 사기범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로 지목한 20~30대 남매를 광주시 산하기관과 사립중학교에 취업하도록 힘을 썼다. 문자를 보낸 사람은 휴대폰 가게를 운영하던 전과 6범의 50대 여성 사기범 김모(50)씨 였지만 윤 전 시장은 1년 가까이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한 건 경찰에 붙잡힌 김씨가 구속되면서이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윤 전 시장 등 지역 유력인사에게 권 여사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윤 전 시장으로부터 4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지검은 김씨에 대해 지난 7일 사기·사기미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사기 피해자로 조사를 받던 윤 전 시장은 피해 금액 출처를 조사하면서 상황이 급변한다. 검찰은 돈을 보낸 시점이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기 위해 이용섭 현 광주시장 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던 점에 주시했다. 공천 등을 염두에 두고 돈을 보냈다면 사기피해 사건일지라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김씨는 지난 1월 18일 “우리 시장님, 꼭 재선하셔야 할텐데. 어제 이용섭(현 광주시장)과 통화를 했고, 제가 만류했는 데 알아들은 것 같다”는 등 공천을 염두에 둔 내용을 보냈다.

또 조사 과정에서 김씨는 자신의 딸과 아들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고 속여 윤 전 시장에게 취업을 청탁했고, 실제 윤 전 시장은 모 사립 중학교와 시 산하기관에 각각 기간제 교사와 임시직으로 채용 부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시장은 “노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데, 권 여사께서 자녀문제로 어렵다고 해 급히 돈을 보낸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의 혼외자 소리를 들었을 때는 노 대통령을 지켜야겠다는 생각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취업 청탁은 사실이지만 공천 청탁은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은 6·13 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3일 윤 전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현재 윤 전 시장의 자금 출처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윤 전 시장은 은행 2곳에서 3억5000만원을 신용대출 받았고, 나머지 1억원은 지역 M건설사 대표에게 빌렸다.

검찰은 이중 1억원 차용을 놓고 대가성 여부를 따지고 있다. 당시 M건설이 광주시와 관련한 사업을 진행했다면 업무상 연관성을 따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을 적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업무상 연관성에 이어 대가성 부분이 드러나면 ‘뇌물죄’가 적용돼 처벌이 강화된다.

현재까지 윤 전 시장과 건설업체 대표는 친밀한 사이임을 강조하며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전 시장과 김씨의 첫 재판은 내년 1월 9일 오전 11시 30분 광주지법 형사12부 정재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사립유치원 감사 수용하라” 사립유치원 투명성 확보와 공공성 강화를 염원하는 광주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0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감사거부 행위를 중단하고 시교육청 감사를 즉각 수용하라’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

## 광주·전남 건강포럼 “보건소장 겨냥한 설문조사 갈등만 초래”

보건소장들의 업무에 대한 일부 직원들의 불만사항을 갑질로 몰아간데 대한 지역 의료계의 우려와 반박의 목소리가 거세다.

기초자치단체 특성상 다른 분야보다 총무국(인사 분야)이나 교통·건설국의 업무 강도나 상·하 직원 관계에 의한 긴장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만을 겨냥해 갑질 여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지적이다.

광주와 전남지역 의료인들의 모임인 광주·전남건강포럼은 20일 성명을 내고 “지난 9월 광주시 한 보건소에서 갑질논란이 제기된 이후 유사한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보건소 노조원들의 설문조사가 감사·징계로 이어졌고, 구성원간 갈등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갑질 논란을 피하기 위해 보건소장이 소극적인 조직 관리를 하게된다면 지역보건 사업의 질적 저하가 초래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이번 사태는 공공보건기관 의사 부족과 무관하지 않다”면서 “공공보건전문가를 양성하지 못하는 지역사회에서 지역 보건의 미래는 있을 수 없고,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용희 기자 kimyh@

## 근로정신대 패소 미쓰비시 상고

일제 강제 징용 피해할머니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이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려져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20일 시민단체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제 강제 징용 배상 사건에 대한 쟁점은 이미 대법원판결을 통해 확정된 상태여서 상고심 판결이 뒤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도 미쓰비시는 전날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확정 판결을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미쓰비시 측이 새로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기까지는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대부분 피해 할머니들이 고령에 요양병원에 있어 또다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광주시 ‘성빈여사’ 원장 중징계 요구

광주시가 20일 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광주YWCA 산하 보육시설 ‘성빈여사’ 원장 A씨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시는 또 아동학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육교사와 원생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보호활동을 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광주YWCA 측은 이날 추경 예산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한 이사회에서 A씨에 대한 징계 절차 등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광주YWCA 측은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A씨를 해당 보육시설 업무에서 배제하고 소규모 그룹홈에서 근무토록 해 실질적인 징계는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현재 A씨는 광주YWCA 사무실에서 보직 없이 대기발령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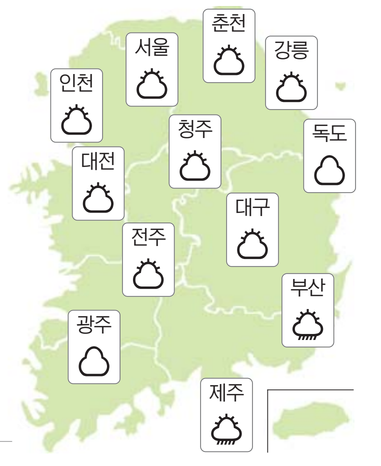
## 오늘의 날씨

| 해뜸 | 07:37 | 달뜸 | 16:16 |
|---|---|---|---|
| 해짐 | 17:24 | 달짐 | 05:32 |

**포근한 주말**

대부분 흐린 가운데 남해안 비 오는 곳 있겠다.

| | | | | | |
|---|---|---|---|---|---|
| 광 주 | 흐림 | 4/17 | 보 성 | 흐림 | 2/14 |
| 목 포 | 흐림 | 6/14 | 순 천 | 흐림 | 3/16 |
| 여 수 | 흐리고 비 | 8/13 | 영 광 | 흐림 | 2/15 |
| 나 주 | 흐림 | 1/16 | 진 도 | 흐림 | 6/14 |
| 완 도 | 흐리고 비 | 6/15 | 전 주 | 구름많음 | 2/15 |
| 구 례 | 흐림 | -1/16 | 군 산 | 구름많음 | 1/13 |
| 강 진 | 흐림 | 3/15 | 남 원 | 구름많음 | -1/15 |
| 해 남 | 흐림 | 4/15 | 흑산도 | 흐림 | 9/12 |
| 장 성 | 흐림 | 1/16 | | | |




◇ 바다 날씨

| | | 오전 | | 오후 | |
|---|---|---|---|---|---|
| | | 풍향 | 파고(m) | 풍향 | 파고(m) |
| 서해남부 | 앞바다 | 북~북동 | 0.5~1.0 | 북~북동 | 0.5~1.0 |
| | 먼바다 | 북~북동 | 1.0~2.0 | 북~북동 | 1.0~1.5 |
| 남해서부 | 앞바다 | 북~북동 | 0.5~1.0 | 북~북동 | 0.5~1.0 |
| | 먼바다(동) | 북~북동 | 1.0~2.5 | 북~북동 | 1.0~2.0 |
| | 먼바다(서) | 북동~동 | 1.0~3.0 | 북동~동 | 1.0~2.5 |

◇ 생활지수

| | |
|---|---|
| 뇌졸중 | 보통 |
| 감기 | 보통 |
| 미세먼지 | 나쁨 |

◇ 물때

| | 간조 | 만조 |
|---|---|---|
| 목포 | 05:55 | 00:19 |
| | 18:37 | 13:08 |
| 여수 | 01:31 | 08:05 |
| | 14:07 | 20:11 |

◇ 주간 날씨

| 22(토) | 23(일) | 24(월) | 25(화) | 26(수) | 27(목) | 28(금) |
|---|---|---|---|---|---|---|
| 5/15 | 2/8 | -2/6 | -2/6 | -3/5 | -4/4 | -5/2 |